



## 기술력과 책임감으로 글로벌 친환경 리더로 우뚝 서겠습니다

4개 법인 통합 'SB선보(주)', 조선·해양 신기술 넘어 미래 에너지 혁신 도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SB선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오늘 이 뜻깊은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보는 지난 39년 동안 중소형 기자재 제품의 '선보공업', 대형 기자재 제품의 '선보유니텍', 호남권 고객을 위한 '선보하이텍', 그리고 파이프 스톱 전문의 '선보피스'까지 4개의 법인으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중요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는 항상 고객 중심의 철학이었으며,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간의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름, 하나의 목표로 통합된 'SB 선보(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로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하나로 통합된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다양성'입니다. 4개 법인이 각기 쌓아온 전문성과 고유한 조직문화는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더욱 풍부해지고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기자재 산업의 틀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와 해양 신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과 열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낼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SB선보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항해는 고객과 함께, 사회와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SB선보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SB선보

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향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철학 아래,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고 성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기업과 고객사, 협력사 여러분, 그리고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SB선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B선보(주) 회장



Special

## SB선보(주) 통합법인 출범, 힘찬 도약 위한 첫걸음

### 탄소중립 밸류체인 구축·친환경 연료 상용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도



SB선보(주)가 7월 1일 부산 사하구 구평공장에서 통합법인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친환경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출범식은 선보공업·선보유니텍·선보하이텍·선보피스 4개 법인을 통합해 출범한 SB선보(주)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외빈과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지자체·상공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인 39주년 창립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개회사 및 국민의례 후 내외빈 소개와 함께 선보의 성장과 혁신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최영찬 SB선보(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통합법인의 의의와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지역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SB선보(주)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어 SB선보(주)의 브랜드 스토리와 비전을 공유하는 발표가 진행됐으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비전 터치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비전이 공식 선포됐다. 최영찬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는 'Sunshine Value Chain'을 주제로 탄소중립 밸류체인 구축 등 중장기 미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 말미에는 최영찬 회장이 사업 초기 선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력자 6명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이후 단체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행사 이후에는 윤수일, 김용필, 조주한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영찬 SB선보(주)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SB선보는 기존 조선 기자재 산업의 틀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와 해양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끌어낼 것"이라며 "이번 법인 통합으로 각 법인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결합해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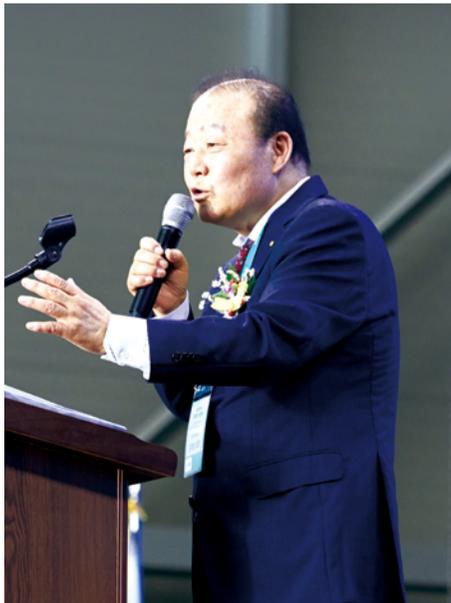
최영찬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는 "SB선보는 개별 기술 개발을 넘어 탄소 포집부터 저장, 재활용, 친환경 연료 및 수소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통합 탈탄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B선보(주)가 발표한 주요 미래 사업 전략은 ▲친환경 연료 전환 ▲탄소배출 저감 기술 상용화 ▲국제 협력을 통한 CCS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등이다. SB선보(주)는 이미 LNG 연료 공급 시스템(FGSS)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메탄올·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시스템(LFSS)의 본격 상용화도 준비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 분야에서는 선박 내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OCCS(Onboard Carbon Capture System)' 기술과 풍력 기반 추진 기술인 'WAPS(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를 오는 2027년까지 실제 선박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운기업 MOL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탄소 재활용과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7개 지역에서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탄소 포집 및 활용(CCS)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SB선보(주)는 이번 법인 통합을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202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 세 개의 선(船·先·善), 미래를 밝히는 선보의 길 SB선보(주) 브랜드 스토리

SB선보(주)는 선박용 스트레이너와 소음기 제조를 시작으로 모듈 유닛 분야까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어왔다. 선보라는 이름 안에는 선보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 조선 공정의 혁신 배 선 船, 보물 보 寶

SB선보(주)는 세계 최초로 '유닛(Unit)' 기술을 도입했다. 현장에서 하나씩 만들던 선박 부품을 공장에서 블록 형태로 미리 제작하고 조립하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 기술로 한발 앞서는 퍼스트 무버 먼저 선 先, 걸음 보 步

SB선보(주)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늘 한발 먼저 움직일 것을 다짐한다. 지속가능한 기술을 남보다 먼저 개발하고, 에너지 전환의 해법도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이다.

### 기술로 만드는 선한 영향력 착할 선 善, 지킬 보 保

선재장학재단을 통한 장학 사업,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 개발 도상국 학교 짓기 사업을 하는 선보 등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개발까지. 기술과 사람을 잇는 선한 영향력이 SB선보의 정신이다.

조선에서 시작해, 친환경 기술로 미래를 열고, 사람과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SB선보(주)

## Sunshine Value Chain

### SB선보(주) 중장기 미래 사업 전략

최영찬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말뫼는 유럽을 대표하는 조선 산업도시였지만, 조선업의 중심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말뫼의 자부심이었던 코쿰스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만 단돈 1달러에 한국에 팔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뫼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은 말뫼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돼 있었습니다.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가 깊게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별 기업 혼자만 혁신을 이뤄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산업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2016년, 제가 30여 개의 중견기업과 함께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 하우스컴비안인베스트를 설립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0개 이상의 혁신 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했고, 특히 수소,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분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저는 노르웨이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혁신을 만났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탄소 포집부터 저장, 재활용까지 이어진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노던라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톱티어 해운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조선업 역시 '글로벌 해양수도의 꿈'이라는 비전 아래 강대국 탄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과 산업, 기술을 연결한 한국형 탈탄소 정책인 'Sunshine Value Chain'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선보가 추진 중인 세 가지 로드맵을 소개합니다.

#### 첫째, 친환경 연료 전환입니다.

이미 LNG 연료 공급 시스템(FGSS)을 선박에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더욱 친환경적인 연료를 활용한 시스템도 상용화를 완료했습니다.

#### 둘째, 선박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선박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OCCS, 풍력으로 선박 연료를 절감하는 풍력보조추진장치. 이를 2027년까지 실제 선박에 적용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 셋째, 자원의 재활용 및 친환경 에너지의 저장 기술을 통한 수소 생산까지, 이를 연결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SB선보(주)는 이미 국내 7개 지역에서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포집된 탄소를 친환경 연료로 활용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CCS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할 것입니다.

10년 전 말뫼의 눈물, 그리고 오늘의 노던라이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탈탄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며,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 한 분 한 분의 빛이 연결되어 말뫼의 눈물이 대한민국의 선사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SB선보(주) New CI & 슬로건

#### New CI



SB SUNBO Co., Ltd.

에스비 선보(주)

#### 슬로건



SB선보(주)의 슬로건은 조선업을 혁신해 온 유닛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비전과 사업 전략을 포괄하는 확장된 SB선보의 언어입니다.



최영찬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

Special

## SB선보(주), 통합을 넘어 혁신으로 부서별 변화와 새로운 도약의 현장

SB선보(주)의 출범은 단순한 법인 통합을 넘어, 각 부서가 새로운 비전과 목표 아래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영업, 전산, 재무인사, 연구, 품질 등 각 부서는 SB선보(주)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통합법인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SB선보(주)의 새로운 도약을 더욱 빛낸 각 부서의 변화와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과 비전을 구성원들의 목소리로 정리해봤다.



### 유무성 상무 기술영업담당

영업부는 SB선보(주)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해외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번 통합법인 출범식에 국내외 주요 고객사를 직접 초청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약하는 SB선보(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글로벌 홍보 영상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업

행사 당일에도 영업부 구성원 모두가 고객들이 편안하고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SB선보(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SB선보(주) 영업부는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정빈 책임 전산팀

전산팀은 이번 SB선보(주) 통합법인 출범 과정에서 ERP 및 인사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과 프로세스 변경을 위해 현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ERP 프로그램 구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도메인 변경으로 인한 포털 및 메일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전산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통합 등 다방면의 시스템 전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전산 부문에서 SB선보(주)가 하나의 통합법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SB선보(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산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




### 박상계 책임 플랜트품질팀

플랜트품질팀은 이번 SB선보(주) 통합법인 출범 과정에서 업무의 세분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품질팀, 사외품질팀, 플랜트품질팀으로 분리 운영했습니다.

품질

회사가 지향하는 'Sailing Green'에 발맞춰, 저희 팀에서는 친환경 선박 모듈 및 육상 플랜트 제품의 최고 품질 확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고를 지향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FGSS, FRS 등 기존 제품군은 품질 고도화를 통해 명품 모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Wind Challenger, 수전해, SCO<sub>2</sub>, CCUS 등의 신제품군에서는 SB선보(주)만의 품질기준을 확립해 최고의 친환경 제품이 되도록 선도하는 플랜트품질팀이 되겠습니다.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켜, 품질로 다시 SB선보(주)를 찾도록 하는 플랜트품질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두영 책임 재무인사팀

재무인사팀은 SB선보(주) 통합 법인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4개 법인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3월 기준 결산 업무와 합병 계약을 위한 자료 준비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출범식 이후 사명 변경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행정적 업무도 원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무와 도전 과제가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SB선보(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한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SB선보(주)와 끝까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재무인사팀이 되겠습니다.

재무인사

### 이세영 이사

선보엔젤과 라이트하우스도 선보Family의 일원으로서, 이번 통합법인 출범식의 기획과 진행을 도왔습니다. SB선보(주)의 뜻깊은 도약과 새로운 비전 추진에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 최재호 책임연구원 미래연구팀

기술연구소에서는 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이전 작업을 수행 중입니다. 법인별 폐업 전 권리이전을 위해 선보공업으로 우선 이전을 진행하고, SB선보(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 69건을 SB선보(주)로 재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술연구소는 SB선보(주)의 기술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SB선보(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 회사 소식 SB선보(주) 창립 39주년 기념식 개최



7월 1일 오전 SB선보(주) 구평공장에서 창립 3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임원, 관리직 책임, 생산직 기원과 협력사 소장 및 수상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국민의례와 사가 제창, 윤리강령 낭독 후 최금식 SB선보(주) 회장은 법인 통합으로 새롭게 임명된 김청옥 SB선보(주) 사장에게 특별 승진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 공로상·모범상·(협력사)우수사원상·감사나눔상·유관기관장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로패, 상장과 함께 상금이 지급됐다. 시상식 후에는 창립 39주년 특별격려금(39만 원) 전달식과 최금식 회장의 창립기념사가 이어졌다. 법인 통합에 따라 공장별로 새롭게 마련된 깃발을 흔들며 함께 축하하는 기수 전달식도 진행됐다. 기념식은 선보인의 10계명 제창, 사가 및 슬로건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구분	부상	수상자
공로상	공로패/100만 원	다대1공장 인진태 전무(설계본부장), 조숙희 선임팀장(출하준비반), 심상섭 기원(A/S PART)
모범상	30만 원	다대1공장 남정화 사원(설계5팀), 배상욱 선임(설계3팀), 양승현 선임(구매1팀), 이상민 선임(설계운영팀), 양혜진 선임연구원(미래연구2팀)
		다대2공장 김정기 기원(전계장사운전팀)
		구평공장 윤재서 선임(선보엔젤파트너스 신사업추진팀), 진성은 책임(생산관리팀)
		대불공장 문화성 선임(의장1팀)
		영암공장 김근호 주임(자재지원반), 서형철 책임(호남품질1팀), 오세준 책임(설계7팀)
우수사원상	20만 원	다대1공장 강형주 선임(설계4팀), 손정우 선임(시운전팀), 손판석 선임(설계6팀), 이창석 선임(설계1팀), 정현교 선임(영업1팀), 조윤지 사원(프로세스개발1팀), 한지혜 사원(품질기획팀), 권예라 선임연구원(미래연구1팀)
		다대2공장 이진우 주임(조립2반)
		구평공장 김대연 선임연구원(프로세스개발2팀)
		대불공장 박민성 사원(호남HSE팀)
		영암공장 권상용 선임(생산관리팀)
		다대1공장 박영호 반장(재경공업), 장국천 반장(삼진공업)
		다대2공장 양정수 기원(대청기업)
협력사 우수사원상	20만 원	구평공장 권혁인 반장·정정배 반장(천조기업), 김학중 소장(삼사), 오상호 반장·김영자 사원(보성E.N.G), 정철민 반장(대진유니트)
		대불공장 이홍희 팀장(케이에이치), 김득진 부장(탐진기업), 넥 사원(유하산업), 김영태 사원(도하), 조성수 팀장(미르테크), 최영수 소장(우진토탈마린서비스), 조승현 반장(제이와이테크)
		영암공장 영암공장-김동현 반장(제이지산업), 이용태 조장(현영산업), 정바위 팀장(태영산업)
감사나눔상	숙박 지원(회원권 40만 원 상당)	다대1공장 김진아 사원(전계장개발팀) 구평공장 강지혜 선임(설계8팀)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자녀장학금 100만 원	구평공장 김언진 책임(설계6팀)
중소벤처기업청	기념품	구평공장 홍표 책임(설계5팀), 신명환 선임(PM팀)
한국산업단지공단		다대1공장 박건우 사원(조립반), 우지에 사원(전산팀)
고용노동청		다대1공장 이명호 기감(HSE기획팀), 유재훈 선임(재무인사팀)
상공회의소		다대1공장 김진황 책임(전계장개발팀) 구평공장 이상훈 팀장(자재지원반)
사하구청		다대2공장 이상민 주임(자재지원반), 김현태 사원(생산관리2팀)



Special

## 공장 한가운데서 펼쳐진 웃음과 감동의 라이브 축제

### 부산MBC 찾아가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다대2공장 방문해 현장 소통



7월 2일 정오, SB선보 다대2공장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찼다.

부산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이 선보를 찾아 현장 공개 방송을 진행하며, 다대2공장은 순식간에 아기자기한 스튜디오로 변신했다. 정경진 아나운서(짚디)와 가수 배기성, 손동혁 리포터가 함께한 이번 특집은 선보Family가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한마음으로 즐긴 유쾌한 시간이었다.

#### 사연과 퀴즈로 알린 'SB선보'와 '부산'의 매력

1부는 '정오의 데이트 스페셜 퀴즈'로 시작했다. 김혜선 사원(프로세스개발1팀)이 직접 무대에 올라 퀴즈 정답인 '다대포'에 관한 힌트를 전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혜선 사원은 공장 내부에 놓인 선보 제품에 대해 질문하는 진행자들에게 "선박 양쪽에 설치돼 LNG 터미널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선보의 대표 제품"이라며 '벙커링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 명소 자랑도 빠질 수 없었다. 낙동강 하굿둑, 장림포구, 아미산, 낙조분수, 갈매길 등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라디오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명소 소개에 이어 지역 맛집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공감 어린 미소를 띠기도 했다.

이어 직원 사연 소개 코너가 진행됐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 김민지 선임(구매1팀)은 복직 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회사의 환영과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선영 선임(전산팀)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 중인데, 바쁜 와중에 목 디스크에 걸려 고생 중"이라며 "그래도 회사 덕분에 성장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동료들이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1부가 마무리됐다.

#### '일터'가 '흥 넘치는 무대'로 변신하다

2부에서는 모두가 기대하던 '손잡고 허밍' 퀴즈가 펼쳐졌다. 무대에서 직원이 허밍(입을 다물고 코로 소리를 내 노래하는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면 현장 직원들과 청취자가 제목과 가수를 맞추는 방식이었다. 정답자에게는 깜짝

선물이 전달돼 현장 분위기가 한층 들떴다.

손동혁 리포터가 직원에게 '허밍 잘하는 팁'을 전달하고, 서상혁 사원(영업1팀)과 최성문 선임(설계5팀)이 직접 허밍 퀴즈를 내며 즐거운 소통이 오갔다. 특히 서상혁 사원은 즉석에서 <그대에게>를 부르며 동료들과 함께 흥을 돋웠다.

코너 중간중간 '리프레시 타임'으로 마련된 가수 배기성의 감성 라이브 무대도 백미였다. <내생에 봄날은>, <천상연>, <가라가라> 등 주옥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팬들과의 소통도 잊지 않은 게스트의 활약 덕분에 현장은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다대2공장에서 펼쳐진 <정오의 희망곡>은 단순한 라디오 방송을 넘어, SB선보와 선보Family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부산 해양산업의 가치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선보Family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회사 소식 SB선보, '2025 부산 청끝기업' 재인증

SB선보(주)가 2025년 '부산 청끝(청년이 끌리는)기업'으로 재인증받았다. 선보는 7월 3일 오후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부산 청끝기업 발대식'에서 '복지가 끌리는 기업' 부문 재인증을 받았다. 선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혁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끝기업'은 부산시가 임금·소득, 고용 안정성, 워라밸 등 청년이 선호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해 청년 인재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부산 대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올해는 기존 100개 사에서 110개 사로 확대 운영된다.

선보는 신입사원에게 선배 멘토 2명을 배치해 업무와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썬톡데이' 등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왔다. 점심시간 간단한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한마음대회'를 정기 개최하고, 우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끝기업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홍보마케팅 지원 ▲전담 청끝매니저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청끝기업 취업박람회 ▲인턴십 및 온보딩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선보는 청끝기업 재인증에 대해 "구직 청년들에게 선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청년 세대와 소통하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보는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 복지와 소통 강화, 유연한 조직 경영을 이어가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선보 플리 출퇴근길, 어떤 노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Viva La Vida** Coldplay

**이용석 선임 프로세스개발1팀**

대학 졸업 후 첫 출근날 이어폰으로 우연히 듣게 된 노래예요. 웅장하면서도 감성적인 멜로디가 왠지 모르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는 느낌이라서, 지금도 중요한 날 아침마다 듣곤 합니다.

**To. 선보Family**

SB선보의 새로운 시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마크툼

**박주홍 팀장 자재지원반**

퇴근길에 발라드 들으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의 존재가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노래를 요즘 자주 듣습니다. 지친 퇴근길에 들으면 마음이 힐링 된답니다.

**To. 선보Family**

오늘도 빛나는 선보 가족, 파이팅입니다!

**Never Ending Story** 아이유

**하은준 책임 설계4팀**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이란 가사를 좋아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가끔은 '다 포기하고 그만할까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마음의 위로를 노래를 통해 얻곤 합니다.

**To. 선보Family**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언젠가 영화 같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TO THE SEA** 로지(ROZY)

**이동욱 선임 전계장개발팀**

다가올 휴가철에 아내와 곧 1살이 되는 아들과 함께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 생각에, 이 노래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셋이서 가는 첫 여름휴가, 기대됩니다!

**To. 선보Family**

여름휴가가 멀지 않았습니대! 모두 힘내세요!

## 회사 소식

## SB선보, ERP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박차

SB선보(주)는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IT 전문기업 세정아이앤씨(대표 김송우)를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통합형 전사적자원관리(ERP)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선보가 추진 중인 조직 통합 및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20여년간 사용해 온 기존 ERP 시스템을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선보는 이번 ERP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총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내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정아이앤씨는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통합 관리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산팀은 "이번 ERP 프로젝트는 제조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산업 노하우와 IT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보 챗봇

## SB선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〇〇!



업무를 하다 보면 판단이 어렵고 방향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핵심 가치가 중요한데요, 핵심 가치는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SB선보(주)는 최근 4개 법인 통합을 맞아 임직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부산사업장과 호남사업장 팀장 워크숍, 임원 회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핵심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고객**입니다.

모든 업무 결정과 판단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바로 고객의 행복이자 감동이에요.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기술**입니다.

지금은 친환경과 탄소중립의 시대입니다. 우리 SB선보는 늘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배우고, 시장에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생**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죠. SB선보는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 그리고 협력사와 지역사회까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넷째, **책임**입니다.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사전 준비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약속한 결과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이죠.

SB선보(주)  
핵심 가치

4가지 핵심 가치는 앞으로 우리 SB선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일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선보Family 여러분, 업무 중 알쏭달쏭 헷갈릴 때는 꼭 이 핵심 가치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함께, 고객·상생·기술·책임을 기억하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 선보Family 김상우 경비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6월 1일 일요일 밤 11시 10분경 SB선보(주) 다대1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김상우 경비팀장은 공장 앞 도로에서 한 할머니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상우 경비팀장은 흥진산업과 다대1공장 사이의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가 위험해 보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것을 권하고 정류장으로 안내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눈 끝에 김상우 경비팀장은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신고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오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으며 김상우 경비팀장에게 찾아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상우 경비팀장이 오후 11시 30분경 현장 출동한 경찰에 후속 조치를 인계함으로써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사건 해결 이후 6월 12일 사하경찰서에서는 김상우 경비팀장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했다.



### 선보로그 전산팀의 문제 해결사 - 박선영 선임

전산팀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IT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해야 할 때 관련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해진 방향에 맞춰 ERP 기능을 개발해 반영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ERP 유지보수와 개발을 맡고 있는 박선영 선임의 일과를 소개합니다.

#### 오전일과

회사와 집이 가까운 소소한 행복~  
요즘 아침마다 회사 계단을 오르며 덜 깬 잠을 깨워봅니다.  
짧은 출근길이지만, 계단을 오르는 그 몇 분이 제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루틴이에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오늘의 포인트!  
바로 요 귀여운 키링 자랑 타임 🗝️



오전에는 각 부서에서 전달해주신 오류와 수정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코드 분석하고 수정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며,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 오후일과

세정 ERP 마이그레이션 워크숍 Day!  
오늘은 세정 담당자와 함께 ERP 마이그레이션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덕분에 점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호화롭게 즐길 수 있었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식사는 덤으로~



본격 워크숍 타임! 오늘은 드디어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운 날.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ERP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을 차근차근 잡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 이제 시작입니다!



요즘 해가 부쩍 길어졌죠. 퇴근길에도 해가 환히 떠 있으니, 왠지 하루를 일찍 마무리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걸까요? :)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오늘의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방문

## 유럽 최대 조선사 '핀칸티에리' 주요 임원, SB선보 방문

7월 3일 유럽 최대 조선사 '핀칸티에리(Fincantieri)'의 주요 임원진이 다대2공장을 방문해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핀칸티에리의 Claudio Cisilino 그룹 수석부사장(Group EVP, Operations, Corporate Strategy and Innovation), Paolo Cerioli 혁신 부문 수석부사장(SVP, Innovation), Michele Tornielli 디지털랩 부사장(VP, Head of Digital Lab)과 함께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방문한 Salvatore Bonaccorso 오픈이노베이션 총괄 등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SB선보가 다대2공장에 설치한 카본밸류 파일럿 설비를 직접 시찰하고, CCS 기술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SB선보는 "이번 핀칸티에리와 MTB의 방문은 SB선보의 CCS 기술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해양산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7월 2일 열린 핀칸티에리 서울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개소식에서는 카본밸류가 탄소 포집 기술 관련 피칭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사회공헌

## 선보봉사단, 물운대사회복지관서 따뜻한 한 끼 나눔



선보봉사단이 6월 10일 오전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최경호 상무(품질경영/경영기획 담당)를 비롯한 봉사단원 10명이 함께했다. 단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에게 정성껏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배식뿐만 아니라 설거지 등 뒷정리까지 역할을 분담해, 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선보봉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 '막힘없는 소통, 강한 조직' 6월 아침특강 개최

SB선보(주)는 6월 11일과 25일 본사 교육장과 구평공장 회의실에서 아침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 주제는 '막힘없는 소통, 강한 조직'으로, 조직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원 간 신뢰 및 소통 향상 방안과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강한 조직을 만드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 방안 등이 소개됐다. 선보Family는 평소 업무환경에서 자신의 소통 스타일을 점검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본사

구평공장

선보Family

# '제기차기 왕은 누구?' 한마음대회 개최

선포터즈와 주니어보드가 주최하는 선보Family 한마음대회가 6월 25일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마음대회 종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였다. 팀당 2명이 참여했으며, 각 참가자는 2번씩 제기를 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팀별로 두 참가자의 기록을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팀이 승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규칙상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전략과 기술이 펼쳐졌다. 설계1팀(최우호 수석·강동호 선임)과 전계장시운전팀(김정기 기원·박웅진 주임)이 각각 우승과 2등을 차지했다. 우승팀에는 인당 5만 원, 2등 팀에는 인당 3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EVENT 결과

# ‘태극기의 진짜 얼굴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SUNBO NEWS> 6월호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마련한 ‘태극기의 진짜 얼굴을 찾아라!’ 이벤트에 48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권다정 선임(기계의장개발2팀)
-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 : 방영봉 책임(구평생산관리팀), 박성우 사원(전산팀)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유병창 책임(설계1팀), 이경진 책임(설계3팀), 이우석 책임(설계1팀), 이노경 선임(설계2팀), 조재욱 선임(설계1팀)



추첨 진행  
이창면 수석  
(다대공장 담당)

EVENT

# 이모지로 떠나는 영화 여행

<SUNBO NEWS>는 제시된 이모지로 유명 영화 제목을 맞추는 ‘이모지로 떠나는 영화 여행’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퀴즈별로 제시된 영화 속 명대사 힌트를 참고해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1

○○○○

Hint. “이제 눈을 떠요.” “날고 있어요, 잭!”

---

2

○○○○

Hint. “Let it go, let it go~”

---

3

○○○○

Hint. “익스펙토 패트로눔!”

---

4

○○○○○

Hint. “Why so serious?”

---

5

○○○○○

Hint. “화룡의 신이 언제나 당신 편이기를.”

부서:

성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다대공장	권진영 책임	전계장시운전팀	2020.07.06(5주년)
	양혜진 선임연구원	기술연구소2팀	2020.07.01(5주년)
구평공장	서만휘 팀장	태산ENG	2020.07.01(5주년)
	안철운 사원	태산ENG	2020.07.01(5주년)
대불공장	이경식 기감	직영생산팀	2000.07.03(2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이사(선보엔젤파트너스), 이수지 사원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과장, 배상준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다대1공장	강승우(07.01) 최금식(07.08) 황원우(07.20) 김재원(07.02) 김희규(07.10) 정다훈(07.21) 이노경(07.04) 전성민(07.10) 반 민(07.23) 최우호(07.06) 강병기(07.13) 홍봉걸(07.24) 정제현(07.07) 박영호(07.15) 이상민(07.29) 정중환(07.07) 유무성(07.17) 장철민(07.29) 한승묵(07.07) 여재혁(07.19) 한지혜(07.29) 고지석(07.08) 삼 술(07.20) 유시호(07.30)
다대2공장	김형원(07.04) 홍타이(07.10) 장필성(07.15) 최철환(07.06) 널 슨(07.15) 바호이(07.22)
구평공장	이호종(07.02) 이창복(07.17) 두 안(07.26) 권오용(07.07) 김영자(07.19) 페 닌(07.26) 강옥찬(07.10) 나상우(07.20) 장 린(07.27) 염태길(07.17) 표종원(07.20) E아집존(07.29)
대불공장	김홍이(07.06) 송봉선(07.18) 김상만(07.28) 이하나(07.08) 문용규(07.23) 김태경(07.29) 허승환(07.08) 박시환(07.23) 정민주(07.29) 마두랑가(07.11) 김상진(07.25)
영암공장	차말라(07.08) 구마라(07.29) 오세준(07.19) 다라카(07.30)
김해공장	손 탁(07.04) 제도성(07.13) 이성삼(07.28) 짐 (07.09) 윤상재(07.23) 왓차뉴(07.31) 손동호(07.10) 김일권(07.27)

입사기념일

다대1공장	강민구(07.01) 심성섭(07.02) 최치욱(07.11) 김수민(07.01) 마이클(07.03) 이동민(07.19) 양혜진(07.01) 이용석(07.03) 서재욱(07.27) 정지원(07.01) 강승우(07.04)
다대2공장	정지훈(07.01) 정주현(07.04) 박병규(07.29) 최예원(07.01) 권진영(07.06) 정일수(07.30) 이경화(07.02) 김경태(07.21) 이정수(07.04) 김현진(07.22)
구평공장	반 흥(07.01) 잠 잠(07.03) 압 둘(07.17) 서만휘(07.01) 후 왕(07.03) 주한디(07.17) 안철운(07.01) 반 소(07.06) 천병철(07.17) 이창복(07.01) 윤치호(07.09) 이호종(07.18) 디 키(07.03) 박진천(07.10) 리스와-(07.03) 김민재(07.12)
대불공장	천무경(07.01) 고한희(07.12) 김상태(07.30) 이경식(07.03) 정호경(07.20) 엄익선(07.30) 이광철(07.03) 박기춘(07.29) 이태산(07.30) 문용규(07.05) 김대근(07.30) 이태운(07.30) 람 (07.10) 김동욱(07.30)
영암공장	경총수(07.12) 신용섭(07.18)
김해공장	김성만(07.01) 손 탁(07.01) 최명철(07.01) 김일권(07.01) 윤호영(07.01) 최영철(07.01) 김형규(07.01) 이기훈(07.01) 투 안(07.05) 나용태(07.01) 이명철(07.01) 송동채(07.14) 박정근(07.01) 이의수(07.01) 레 이(07.18) 박진순(07.01) 장재선(07.01) 손우효(07.01) 정인길(07.01)